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6년 8월 조사 -

경기는 답보상태, 기후가 전국각지의 체감경기에 영향

~ 해외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완화정책의 행방에 주목 ~

(조사대상 2 만 3,700 사, 유효회답 1 만 508 사, 회답율 44.3%,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1. 8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42.3이 되어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공공공사의 증가나 여행수요가 경기부양요인이 된 한편, 불순한 날씨에 각 지역이나 일부 업종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경기는 플러스재료와 마이너스재료가 혼재되어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향후 경기는 금융시장이 해외 발 리스크의 영향을 받으며, 보합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2. 『건설』 등 4개 업종이 개선, 『농·임·수산』 등 6개 업종이 악화. 태풍 9호가 11년 만에 관동지방에 직접 상륙한 이외에 9년 만에 홋카이도에 태풍이 상륙하는 등 동일본에 태풍의 내습이 잇따르는 점이나 서일본의 기록적인 폭염이 『농·임·수산』이나 『서비스』 등 일부 업계·업종에 악영향을 미쳤다.
3. 『홋카이도』나 『큐슈』 등 3개 지역이 개선, 『토호쿠』 『킨키』 등 6개 지역이 악화, 『토카이』가 보합세를 보였다. 『킨키』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하여 주로 발품을 팔아 구매하는 상품의 소비가 감소한 반면, 『토호쿠』에서는 관측 사상 처음으로 직접상륙한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기상으로 인해 지역별 체감경기의 명암이 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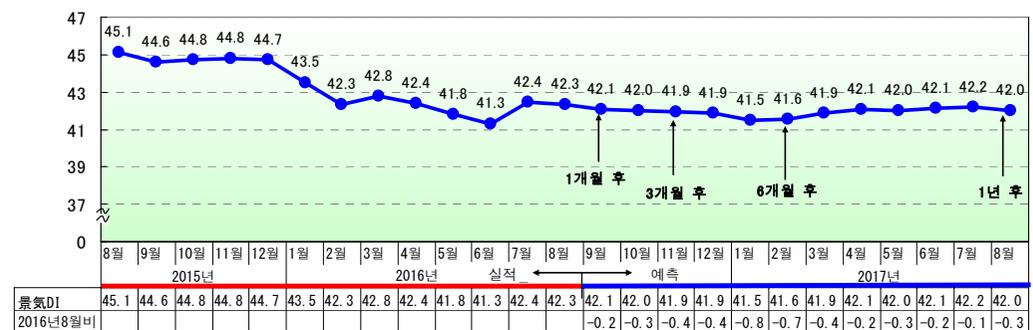
< 2016년 8월의 동향 : 답보상태 >

2016년 8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42.3이 되어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8월 15일에 발표된 2016년 4~6월기 실질GDP성장율은 전기 대비 보합(연이자율환산+0.2%)에 그쳐, 회복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8월의 국내경기는 『킨키』를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폭염과 동시에, 8월 기준 1962년 이래 54년 만에 4개의 태풍이 상륙하여 『토호쿠』나 『홋카이도』 등의 지역 이외에도, 『음식점』이나 『농·임·수산』 등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인력부족에 동반하는 단가상승은 기업의 코스트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쿠마모토지진으로 인한 복구공사나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한 공공공사의 증가,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공휴일 「산의 날(山の日)」에 동반하는 국내여행수요의 고조 등 플러스재료도 보였다. 국내경기는 플러스재료와 마이너스재료가 혼재되어 답보상태가 지속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상태로 추이 >

국내경제는 재정의 조기지출이나 금융완화정책의 지속 등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과거 3년여에 걸친 금융완화정책의 “총괄적인 검증”이 9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10월부터 시행될 최저임금인상은 개인소득의 향상을 가져오는 한편,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설비투자 등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EU이탈의 행방이나 유럽의 정치문제, 미국 대통령선거나 금리인상의 타이밍,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 등 불확실성을 높이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일본의 금융시장이 해외 발 리스크의 영향을 받기 쉬워져 있는 가운데, 향후의 경기는 보합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4개 업계가 개선되었으며 6개 업계가 악화, 잇따른 태풍내습이나 폭염이 영향

· 『건설』 등 4개 업계가 개선, 『농·임·수산』 등 6개 업계가 악화. 과거최대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올림픽에서 일본인이 눈부신 활약을 보였지만 소비촉진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태풍 9호가 관동지방에 11년 만에 직접 상륙한 이외에, 홋카이도에는 9년 만에 태풍이 상륙하는 등 동일본에 잇따른 태풍내습이나 서일본의 기록적인 폭염이 『농·임·수산』이나 『서비스』 등 일부 업계·업종에 악영향을 미쳤다.

· 『농·임·수산』 (40.1) …전월 대비 2.4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닭고기 문제의 전반적인 영향에 의한 수입품 증가에 더불어, 작년의 시세상승으로 인 지속된 국내산 제품의 증산경향으로 수하가격이 침체하여 양계업의 채산이 악화되었다. 또한 토호쿠나 홋카이도에서 저온이나일조량 부족 등의 영향을 받고 있던 차에 태풍이 잇따라, 양과 등 농작물에 악영향이 있었으며, 해수온의 변화 등 해황(海況)악화로 인한 어획량감소도 타격을 주어, 전체적으로 체감경기가 하락하였다.

· 『제조』 (40.9) …동 0.3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지진이나 공장사고로 자동차제도가 일시정체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연간계획대수의 확보를 위해 생산 페이스를 높이고 있는 점이 기여하여 자동차차체 및 부품제도가 호조인 「운송용기계·기구제조」가 동 0.9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엔고현상의 영향으로 제조사가 경비삭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스트다운요청을 받은 「화학품제조」가 동 1.5포인트 감소하였다. 중국경제의 감축에 동반하는 건설기계 관련 수주침체 이외에, 불투명한 경제정세로 인하여 설비투자가 신중해져, 공장기계의 출하액 감소가 영향을 미친 「기계제조」가 동 0.6포인트 감소하는 등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 『서비스』 (47.7) …동 0.1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인력부족에 의한 고수준의 단가가 코스트 부담을 초래한 「정보서비스」가 동 0.8포인트 감소하였다. 절약지향성과 올림픽 텔레비전 관전, 태풍등과 및 무더위로 인하여 외출기회가 감소하여 「음식점」이 동 3.1포인트 하락하는 등 15개 업종 중 5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한편으로 큐슈의 홋코와리(ふっこう割)가 호조인 가운데 백중(お盆)·여름휴가수요 및 중국에서 크루즈선에 의한 방일객 증가가 기여하여 「전통여관·호텔」이 동 2.2포인트 증가하였다. 신규 졸업자의 채용이 마무리되면서 인력부족해소를 위한 채용활동의 활발화로 구인광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관련」이 동 0.3포인트 개선되었다.

· 『건설』 (46.9) …동 0.4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리우올림픽이 폐막하여 다음 주자인 도쿄올림픽을 위해 관련시설의 공사시작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방문 고객수요 등에 대비하여 호텔이나 대형상업시설, 오피스빌딩에 대한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가 호조로 추이하고 있으며, 금리저하나 상승세대책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착공도 지속되었다. 공공공사는 쿠마모토지진에 대한 복구공사가 지속되는 이외에, 2015년도 보정예산 및 2016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전국적인 공공공사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와, 전국적으로 체감경기가 개선되었다.

		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비	
농·임·수산		44.7	44.7	44.6	45.2	46.4	43.6	44.5	42.3	42.4	42.1	43.7	42.5	40.1	▲ 2.4	
금용		46.5	46.3	47.3	46.6	46.3	45.3	44.3	44.8	45.5	44.3	45.0	45.1	43.7	▲ 1.4	
건설		48.8	49.1	49.5	49.6	49.3	47.9	45.9	46.3	45.2	44.9	44.7	46.5	46.9	0.4	
부동산		48.4	48.7	48.7	48.9	48.4	47.1	48.0	48.2	48.1	48.3	48.4	47.8	47.3	▲ 0.5	
제조	식품료품·사료제조	43.0	43.6	44.3	44.5	44.1	44.2	43.2	44.2	44.6	43.4	43.0	43.0	42.1	▲ 0.9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40.2	38.8	39.8	39.4	39.3	36.4	37.6	39.8	38.2	38.4	38.2	37.0	37.8	0.8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41.2	40.9	40.2	38.9	40.7	38.5	38.0	38.6	37.9	38.3	37.8	40.5	40.7	0.2	
	팔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42.0	40.8	41.1	42.4	41.7	40.3	36.8	37.6	40.2	38.6	38.5	40.4	39.4	▲ 1.0	
	솔란·인쇄	34.9	34.8	34.8	34.6	34.7	34.0	34.6	35.3	34.1	34.0	32.9	33.5	32.8	▲ 0.7	
	화학품제조	45.3	44.4	44.4	44.9	45.4	44.3	42.8	42.7	43.0	42.7	42.2	43.3	41.8	▲ 1.5	
	철강·비철금속·광업	42.8	41.7	41.4	41.8	41.5	41.1	38.8	38.3	38.3	38.1	37.6	38.7	39.8	1.1	
	기계제조	50.3	47.3	47.9	47.3	48.6	46.0	45.5	45.7	45.3	44.0	43.6	44.9	44.3	▲ 0.6	
	전기기계제조	44.8	45.2	45.2	45.2	44.9	43.0	42.8	42.8	42.3	40.4	40.4	41.9	41.5	▲ 0.4	
	수송용기계·기구제조	50.8	48.3	46.3	47.0	46.2	45.7	44.6	46.8	46.8	43.8	42.7	44.0	44.9	0.9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51.2	47.9	48.6	47.9	46.1	46.2	43.1	44.6	44.6	43.2	43.2	42.6	43.2	0.6	
	기타 제조	37.7	40.0	39.8	40.0	39.6	39.4	39.1	40.6	37.5	37.8	37.0	39.1	35.7	▲ 3.4	
전체		44.2	43.2	43.3	43.3	43.5	42.2	41.2	41.6	41.3	40.6	40.1	41.2	40.9	▲ 0.3	
도매	식품료품도매	42.7	43.6	43.0	43.1	42.6	41.9	40.9	42.2	42.6	41.0	40.1	41.1	40.4	▲ 0.7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4.7	36.5	37.8	34.4	34.4	33.5	32.7	33.8	35.7	34.6	35.3	33.5	34.5	1.0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9.7	39.5	41.3	41.5	41.8	40.5	39.1	39.4	39.2	38.4	37.6	39.0	38.9	▲ 0.1	
	종이류·문구·서적도매	36.5	36.8	36.8	37.4	37.2	38.1	37.4	38.0	36.6	36.7	34.2	35.9	36.3	0.4	
	화학품도매	42.6	42.3	42.5	42.8	43.2	40.8	39.2	40.2	39.5	39.4	38.8	39.9	39.4	▲ 0.1	
	생활자원도매	36.0	25.8	29.9	26.7	32.1	25.6	28.4	30.7	39.3	33.3	28.3	29.4	35.0	5.6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0.3	38.5	38.8	39.4	37.7	36.4	35.8	36.1	35.2	34.6	33.2	35.7	36.0	0.3	
	기계·기구도매	45.3	43.6	43.6	43.4	43.6	42.6	41.2	41.7	40.9	41.1	39.7	40.9	40.5	▲ 0.4	
	기타 도매	41.4	40.8	41.0	41.1	41.1	39.9	39.0	39.6	39.1	38.6	38.2	38.0	38.7	0.7	
	전체		41.9	41.2	41.5	41.4	41.4	40.1	39.0	39.7	39.4	38.9	37.9	38.8	38.9	0.1
	소매	식품료품소매	44.0	44.5	44.6	41.4	43.2	39.9	40.4	43.4	42.1	38.9	38.6	40.7	40.0	▲ 0.7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8.7	36.9	40.1	36.8	32.1	34.8	31.6	33.3	35.1	32.9	32.5	33.8	32.8	▲ 1.0
의약품·약품합품소매		48.7	46.7	48.6	50.0	49.4	45.3	45.4	46.1	42.0	41.1	37.9	42.5	42.5	0.0	
가구류소매		41.7	42.9	42.9	42.9	47.2	42.9	40.5	40.5	38.1	42.9	41.7	36.1	35.4	▲ 0.7	
가전·정밀기구소매		38.3	44.6	39.6	38.7	40.7	43.8	39.2	40.4	40.7	35.8	36.6	40.2	37.9	▲ 2.3	
자동차·동 부품소매		38.7	38.6	39.9	38.2	37.9	40.0	37.9	38.6	40.4	37.2	37.0	39.8	40.1	0.3	
전문상품소매		41.6	40.7	39.2	39.8	38.4	40.4	39.2	37.4	38.9	37.0	37.4	37.6	36.7	▲ 0.9	
각종상품소매		49.0	47.3	46.5	47.3	43.8	45.0	43.7	44.8	43.3	43.7	42.6	43.2	39.9	▲ 3.3	
기타 소매		44.4	44.4	36.1	38.9	43.3	44.4	41.7	44.4	41.7	42.9	41.7	46.7	47.2	0.5	
전체		42.4	42.2	41.6	40.9	40.2	41.0	39.5	40.1	40.2	38.0	37.7	39.3	38.4	▲ 0.9	
운수·창고		44.9	45.1	44.7	45.4	45.3	43.2	41.9	41.9	41.5	41.5	40.0	41.5	42.0	0.5	
서비스		음식점	51.3	45.3	49.2	46.2	44.4	47.1	42.1	43.6	43.1	42.3	40.2	45.3	42.2	▲ 3.1
	전기통신	53.0	59.3	57.6	53.0	51.5	58.3	54.2	50.0	59.1	52.4	46.2	52.6	51.1	▲ 1.5	
	전기·가스·수도·열공급	51.9	56.7	55.0	55.0	55.0	52.4	53.7	50.0	51.9	47.6	44.4	42.9	46.3	3.4	
	리스·임대	49.9	48.0	48.0	49.2	49.7	48.1	46.2	47.1	45.9	46.7	45.5	45.9	47.2	1.3	
	료관·호텔	59.0	58.3	61.4	59.1	55.4	56.9	54.7	56.1	50.5	44.4	46.8	47.8	50.0	2.2	
	오락서비스	38.0	37.9	38.0	38.0	38.6	39.1	37.3	36.9	38.0	36.8	38.4	37.1	38.0	0.9	
	방송	46.1	41.7	45.1	46.9	47.8	43.8	46.9	45.6	46.7	44.4	42.7	43.6	44.4	0.8	
	멘데니스·경비·검사	47.4	46.0	46.1	47.1	46.4	44.8	43.8	43.9	44.4	44.3	44.3	46.3	46.4	0.1	
	광고관련	40.7	40.8	40.7	40.3	40.3	39.2	37.2	40.9	37.5	36.8	37.9	38.9	39.2	0.3	
	정부서비스	55.8	55.5	56.0	54.9	54.9	55.2	53.3	53.4	53.4	52.5	52.2	53.0	52.2	▲ 0.8	
	인재파견·소개	55.0	54.2	54.7	52.5	53.1	50.9	52.7	54.7	53.1	52.5	49.4	52.4	52.7	0.3	
	전문서비스	51.4	51.5	49.0	50.3	52.1	49.1	48.9	49.6	48.3	48.6	49.2	50.5	48.8	▲ 1.7	
의료·복지·보건위생	43.6	42.8	42.3	44.1	42.2	39.9	39.2	42.5	41.5	41.4	41.5	41.6	42.6	1.0		
교육서비스	44.1	42.1	45.0	50.8	46.7	46.3	46.8	47.4	43.0	42.2	43.9	48.2	43.1	▲ 5.1		
기타 서비스	48.5	49.3	49.2	50.1	49.0	45.9	47.5	47.1	46.7	45.7	46.8	46.6	48.2	1.6		
전체		50.1	49.6	49.6	49.6	49.6	48.4	47.4	48.2	47.5	46.8	46.7	47.8	47.7	▲ 0.1	
기타		40.7	41.4	42.3	41.9	43.8	40.9	39.4	38.8	37.4	37.5	37.5	38.8	40.1	1.3	
격차 (10개업계별 『기타』 제외)		8.2	8.4	8.1	8.7	9.4	8.3	9.0	8.5	8.7	10.3	10.7	9.0	9.3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 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 등을 포함함.

규모별 :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를 끌어올린 「건설」과 「운수·창고」

· 「대기업」이 45.7(전월 대비 0.9포인트 감소), 「중소기업」이 41.4(동 0.1포인트 증가), 「소규모기업」이 40.6(동 0.3포인트 증가)이 되었으며, 「대기업」이 악화된 한편, 「중소기업」「소규모기업」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대기업」은 엔고현상으로 인하여 외화매출에 영향을 끼친 『제조』나 『도매』 등 7개 업계가 악화되었으나, 「중소기업」은 공공공사의 증가로 『건설』이나 『운수·창고』 등 5개 업계가 개선되어 전체 체감경기를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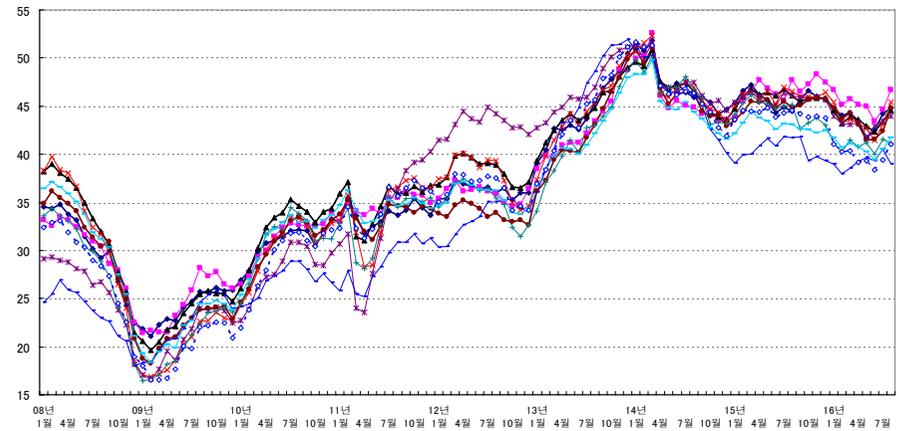
	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비
대기업	48.9	48.2	48.4	48.4	47.9	47.1	46.0	46.5	46.2	45.7	45.1	46.6	45.7	▲ 0.9
중소기업	44.1	43.6	43.7	43.7	43.8	42.5	41.3	41.8	41.4	40.8	40.3	41.3	41.4	0.1
(그 중 소규모 기업)	43.2	43.2	43.2	43.1	43.3	41.8	40.3	40.8	40.3	39.7	39.6	40.3	40.6	0.3
격차 (대기업 - 중소기업)	4.8	4.6	4.7	4.7	4.1	4.6	4.7	4.7	4.8	4.9	4.8	5.3	4.3	

※색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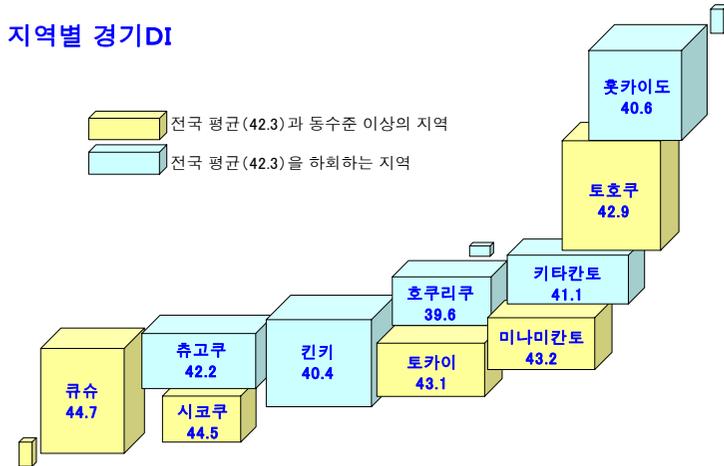
지역별 : 영암을 가른 기상영향

- 『홋카이도』나 『큐슈』 등 3개 지역이 개선, 『도호쿠』 『킨키』 등 6개 지역이 악화, 『도카이』는 보합세를 보였다. 『킨키』는 과거최대의 무더위로 주로 발품을 팔아 구매하는 상품의 소비가 약화되었던 한편, 『도호쿠』에서는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기후에 의해 지역 간 체감경기의 명암이 갈렸다.
- 『도호쿠』(42.9) ...전월 대비 0.5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태풍으로 인하여 공장의 작업정지나 대형상업시설의 휴업 등 기상불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백중 맞이 판매경쟁이 소극적이었던 「음식료품·사료제조」를 포함한 『제조』 이외에, 『서비스』는 「전통여관·호텔」「오락서비스」도 기상불순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농·임·수산』은 목재수요의 침체도 더해져 3개월 만에 악화되는 등 『도호쿠』는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 『킨키』(40.4) ...동 0.1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일본방문 관광객에 의한 인바운드수요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는 무더위가 관측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져 외출을 꺼리게 되어 주로 발품을 팔아 구입하는 상품 등의 소비가 저조하였던 『소매』가 동 2.4포인트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건설』은 공공공사가 증가한 이외에 개인소유주택의 건설수요가 호조를 보여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 『큐슈』(44.7) ...동 0.5포인트 증가.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여름휴가나 백중으로 인한 귀성 등 여행·관광시즌에 태풍의 발생·접근이 없어 좋은 날씨가 이어졌다. 『제조』는 기업에서 「지역 외로부터의 상품문의 증가」나 「국내회귀에 의한 생산 확대」와 같은 움직임이 보였던 「전기기계제조」나 「철강·비철·광업」 등이 개선되었다. 쿠마모토지진으로 인한 복구·부흥이 진행되고 있는 「쿠마모토」는 동 2.7포인트 증가하여 50.9가 되었으며, 소비세율 인상전의 막바지 수요가 피크였던 2014년 3월(53.0) 이래, 2년 5개월 만에 50을 상회하였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비
홋카이도	41.8	41.8	39.3	39.8	39.4	39.0	37.9	38.6	39.2	39.6	39.4	40.5	39.0	▲ 1.5
도호쿠	46.1	45.9	45.8	45.9	45.6	43.9	43.2	43.1	43.3	41.7	42.9	43.4	43.9	0.5
기타칸토	45.2	42.6	43.3	43.8	43.0	41.1	40.3	41.5	40.8	41.2	40.0	41.5	41.1	▲ 0.4
미나미칸토	46.1	45.4	45.8	45.8	45.8	44.6	43.2	43.9	43.6	43.0	42.3	43.4	44.6	1.2
호쿠리쿠	44.6	44.2	43.9	43.9	43.8	41.1	40.3	40.4	39.2	39.3	38.4	39.4	41.1	1.7
도카이	46.5	46.0	46.0	45.9	46.4	45.4	43.6	43.6	43.3	42.7	41.5	43.1	45.4	2.3
킨키	43.1	42.7	42.6	42.3	42.5	41.7	40.7	41.1	40.8	40.3	39.4	40.5	41.7	1.2
큐고쿠	44.9	45.0	45.6	45.8	45.8	44.8	43.7	44.3	43.1	41.5	41.5	42.4	44.8	2.4
시코쿠	47.7	46.5	47.3	48.3	47.5	46.7	45.1	45.7	45.2	45.0	43.4	44.6	46.7	2.1
큐슈	44.5	45.7	46.6	46.0	45.6	44.8	44.0	44.3	43.4	41.7	42.5	44.2	44.8	0.6
격차	5.9	4.7	8.0	8.5	8.1	7.7	7.2	7.1	6.0	5.7	5.0	5.2	7.7	

※색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